뽑아 읽는 ≪맹자≫ 강독 / 제8강 맹자가 주목한 인물들

○ 陳相見許行而大悅, 盡棄其學而學焉. 陳相見孟子, 道許行之言曰:「滕君則誠賢君也, 雖然, 未聞道也. 賢者與民並耕而食, 饔飧而治. 今也滕有倉廩府庫, 則是厲民而以自養也, 惡得賢?」孟子曰:「許子必種粟而後食乎?」曰:「然.」「許子必織布而後衣乎?」曰:「否, 許子衣褐.」「許子冠乎?」曰:「冠.」曰:「奚冠?」曰:「冠素.」曰:「自織之與?」曰:「否, 以粟易之.」曰:「許子奚爲不自織?」曰:「害於耕.」曰:「許子以釜甑爨, 以鐵耕乎?」曰:「然.」「自爲之與?」曰:「否, 以粟易之.」「以粟易械器者, 不爲厲陶冶, 陶冶亦以其械器易粟者, 豈爲厲農夫哉? 且許子何不爲陶冶, 舍皆取諸其宮中而用之, 何爲紛紛然與百工交易? 何許子之不憚煩?」曰:「百工之事固不可耕且爲也.」「然則治天下獨可耕且爲與?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 且一人之身, 而百工之所爲備, 如必自爲而後用之, 是率天下而路也. 故曰: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 天下之通義也. ..... 人之有道也, 飽食、煖衣、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放勳曰: 勞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 聖人之憂民如此而暇耕乎? 堯以不得舜爲己憂, 舜以不得禹皐陶爲己憂. 夫以百畝之不易爲己憂者, 農夫也.」(≪孟子.滕文公上≫)

【해석】
진상(陳相)이 허행(許行)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면 자신의 학문을 모두 버리고 허행에게서 배웠다. 진상이 맹자(孟子)를 만났을 때 허행의 말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등(滕)나라 임금은 참으로 어진 임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올바른 도(道)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자는 백성과 함께 농사를 지어 먹고, 직접 밥을 지으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등나라에는 곡식창고와 금전창고가 있으니, 이는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서 자신만 봉양하는 것이니 어찌 어질다 하겠습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허자(許子)는 반드시 곡식을 심은 뒤에 먹습니까?"
진상: "그렇습니다."
맹자: "허자는 반드시 옷감을 짠 뒤에 입습니까?"
진상: "아닙니다. 허자는 모포를 입습니다."
맹자: "허자는 관(冠)을 씁니까?"
진상: "관을 씁니다."
맹자: "어떤 관을 씁니까?"

진상: "소(素)로 만든 관을 씁니다."
맹자: "직접 짠 것입니까?"
진상: "아닙니다. 곡식으로 바꿉니다."
맹자: "허자는 어째서 직접 짜지 않습니까?"
진상: "농사를 짓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맹자: "허자는 솥이나 시루로 밥을 짓고 쇠로 밭을 갑니까?"
진상: "그렇습니다."
맹자: "직접 만듭니까?"
진상: "아닙니다. 곡식으로 바꿉니다."
맹자: "곡식으로 기계와 바꾸는 것이 도공이나 대장장이를 못살게 구는 아니듯 도공이나 대장장이 역시 기계로 곡식과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를 못살게 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허자는 어찌 그릇도 굽고 연장도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집에서 취하여 사용하는 것을 버리고, 어찌 어지러이 백공(百工)들과 교역을 한답니까? 어찌하여 허자는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습니까?"
진상: "백공의 일은 진실로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자: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몸이지만 백공이 만드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이는 온 천하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어떤 이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이는 힘을 수고롭게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이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먹임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공통된 정의이다. .....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나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깝게 된다. 성인(聖人)께서 근심하시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인륜(人倫)을 가르치게 하시니,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이 그것이다. 방훈(放勳)께서 말씀하셨다. '힘든 이는 위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며, 힘없는 이는 도와주어 스스로 제 자리를 얻게 할 것이며, 그런 뒤에 덕을 베풀라.' 성인이 백성들을 걱정하시는 것이 이러한데 어느 겨를에 농사를 짓겠는가? 요임금은 순을 얻지 못하는 것을 근심으로 삼았고, 순임금은 우(禹)나 고요(皐陶)를 얻지 못하는 것을 근심으로 삼았다. 백묘(百畝)의 밭을 일구지 못하는 것을 근심으로 삼는 것은 농부이다."
(≪맹자·등문공상≫ 중에서)

○ 彭更問曰:「後車數十乘, 從者數百人, 以傳食於諸侯, 不以泰乎?」孟子曰:「非其道, 則一簞食不可受於人, 如其道, 則舜受堯之天下, 不以爲泰, 子以爲泰乎?」曰:「否, 士無事而食, 不可也.」曰:「子不通功易事, 以羨補不足, 則農有

餘粟, 女有餘布, 子如通之, 則梓匠輪輿皆得食於子. 於此有人焉, 入則孝, 出則悌, 守先王之道, 以待後之學者, 而不得食於子, 子何尊梓匠輪輿而輕爲仁義者哉?」曰:「梓匠輪輿, 其志將以求食也, 君子之爲道也. 其志亦將以求食與?」曰:「子何以其志爲哉? 其有功於子, 可食而食之矣. 且子食志乎? 食功乎?」曰:「食志.」曰:「有人於此, 毁瓦畫墁, 其志將以求食也. 則子食之乎?」曰:「否.」曰:「然則子非食志也, 食功也.」(≪孟子.滕文公下≫)

【해석】

팽경(彭更)이 물었다. "뒤의 수레가 수십 대이고 따르는 자가 수백 명인데, 이들을 대리고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먹기만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도리가 아니라면 밥 한 그릇도 남에게 받아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만일 도리에 맞다면 순(舜)임금께서 요(堯)임금의 천하를 받으시면서도 너무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나니, 그대는 너무하다고 여기는가?"
팽경: "아닙니다. 선비들이 하는 일 없이 먹는 것이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맹자: "그대가 통공역사(通功易事)하여 남은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농부에게는 곡식이 남아돌 것이고 직녀에게는 옷감이 남아돌 것이다. 그대가 만일 유통을 한다면 집 짓는 목수와 수레바퀴를 만드는 장인들이 모두 그대로 인해 밥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오면 공손하며 선왕(先王)의 도를 지키면서 뒷날의 학자를 기다리는데 그대로 인해 밥을 먹지 못한다면, 그대는 왜 목수와 장인은 존중하면서 인의(仁義)를 실천하는 이는 경시하는 것인가?"
팽경: "목수와 장인은 그 일을 하는 뜻이 밥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군자가 도를 추구하는 뜻도 밥을 구하는 것입니까?"
맹자: "그대는 어찌 그 뜻을 말하는가? 그가 그대를 위해 한 일이 밥을 먹여줄 만하면 먹어주는 것이다. 그대는 그의 뜻을 보고 밥을 주겠는가, 그가 한 일을 보고 밥을 주겠는가?"
팽경: "뜻을 보고 밥을 줄 것입니다."
맹자: "여기 누군가 있다고 해보자. 그가 기와를 부수고 담벼락에 그림칠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한 뜻이 밥을 구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대는 그에게 밥을 주겠는가?"
팽경: "아닙니다."
맹자: "그렇다면 그대는 뜻을 보고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일을 보고 밥을 주는 것이다."

(≪맹자·등문공하≫ 중에서)

○ 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其惟春秋乎! 罪我者其惟春秋乎!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墨翟之言盈天下, 天下之言不歸楊, 則歸墨.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公明儀曰: 庖有肥肉, 廏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率獸而食人也. 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不著, 是邪說誣民, 充塞仁義也. 仁義充塞, 則率獸食人, 人將相食.」
(≪孟子.滕文公下≫)

【해석】
맹자(孟子): "세상이 쇠잔하고 도가 미약해지자 사악할 학설과 포악한 행위들이 일어나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신하와 그 아버지를 시해하는 자식이 생겨났다. 공자(孔子)께서 두려워하시어 춘추(春秋) 를 지으셨다. 춘추 는 천자(天子)의 일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아준다면 그것은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고, 나를 죄 준다면 그것도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셨다. 성왕(聖王)은 나오시지 않고, 제후(諸侯)들은 방자했으며, 처사(處士)들은 제멋대로 떠들어댔다. 그 결과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언설이 천하에 가득하여, 천하의 언설이 양주 아니면 묵적에게 귀결되었다. 양주는 '위아(爲我)'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임금이 없어도 된다(無君)'는 논리이고, 묵적은 '겸애(兼愛)'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無父)'는 논리이다.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거나 임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금수(禽獸)나 할 짓이다. 공명의(公明儀)가 말했다. '푸줏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에게는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판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고 가서 사람을 먹인 셈이다.' 양주와 묵적의 도가 소멸되지 않고는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사악한 학설이 백성들을 현혹시켜 인의(仁義)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인의가 질식되면 짐승을 몰고 가서 사람을 먹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맹자·등문공하≫ 중에서)

○ 孟子曰:「伯夷, 目不視惡色, 耳不聽惡聲. 非其君, 不事, 非其民, 不使. 治則進, 亂則退. 橫政之所出, 橫民之所止, 不忍居也. 思與鄕人處, 如以朝衣朝冠坐於塗炭也. 當紂之時, 居北海之濱, 以待天下之淸也. 故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백이(伯夷)는 눈으로는 악한 색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악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자신이 바라던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던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갔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물러났다. 횡포한 정치가 산출되고 횡포한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참고 살지 못했다. 그는 향인(鄕人)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마치 조의(朝衣)와 조관(朝冠)을 입고서 도탄(塗炭)에 앉는 것처럼 생각했다. 주(紂)임금 때를 당해서는 북쪽 바닷가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백이의 풍도(風度)를 듣게 되면 두루뭉술한 자는 모서리를 갖게 되고, 나약한 자는 세운 뜻을 갖게 된다."

○「伊尹曰: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曰: 天之生斯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 予, 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此道覺此民也. 思天下之民匹夫匹婦有不與被堯舜之澤者, 若己推而內之溝中, 其自任以天下之重也.

이윤(伊尹)은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닐 것이며, 누구를 부린다고 백성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이 잘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나아갔다. 그는 말했다. '하늘이 이 백성들을 내실 때 먼저 안 사람[先知]으로 하여금 나중에 알 사람[後知]을 깨우치도록 하셨고, 먼저 깨달은 사람[先覺]으로 하여금 나중에 깨달을 사람[後覺]을 깨우치게 하셨다. 나는 하늘 백성들 중에 먼저 깨달은 자이니, 내 장차 이 도(道)로써 이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천하의 백성들 중에 필부필부(匹夫匹婦)라도 요순(堯舜)의 은택을 더불어 입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이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서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는 막중한 천하를 자임하였던 것이다.

故聞柳下惠之風者, 鄙夫寬, 薄夫敦.
유하혜(柳下惠)는 탐욕스러운 임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작은 관직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어짊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다. 등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힘들어도 고민하지 않았다. 향인(鄕人)과 더불어 함께 있더라도 반가워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무리 내 곁에서 발가벗는다 해도 네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유하혜의 풍도를 듣게 되면 비루한 자는 너그러워지고, 야박한 자는 돈독해진다.

孔子之去齊, 接淅而行, 去魯, 曰: 遲遲吾行也 , 去父母國之道也. 可以速則速, 可以久則久, 可以處則處, 可以仕則仕, 孔子也.」(≪孟子.萬章下≫)

공자(孔子)께서 제(齊)나라를 떠나실 때는 밥 짓기 위해 씻어놓았던 쌀을 거둬들고 떠나셨는데, 노(魯)나라를 떠나실 때는 '더디고 더디도다. 나의 발걸음이여'라고 하셨으니 모국을 떠나는 도리이다. 빠르게 해야 할 땐 빠르게 하시고, 오래 해야 할 땐 오래 하시고, 은거해야 할 땐 은거하시고, 벼슬해야 할 땐 벼슬하신 분은 공자시다."
(≪맹자·만장하≫ 중에서)

○ 孟子曰:「伯夷, 聖之淸者也, 伊尹, 聖之任者也, 柳下惠, 聖之和者也, 孔子, 聖之時者也,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振之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 終條理者, 聖之事也. 智, 譬則巧也, 聖, 譬則力也. 由射於百步之外也, 其至, 爾力也, 其中, 非爾力也.」
(≪孟子.萬章下≫)

맹자(孟子)가 말했다. "백이(伯夷)는 성인의 면모 가운데 청(淸)에 뛰어났던 분이고, 이윤(伊尹)은 성인의 면모 가운데 임(任)에 뛰어났던 분이고, 유하혜(柳下惠)는 성인의 면모 가운데 화(和)에 뛰어났던 분이고, 공자(孔子)는 성인의 면모 가운데 시(時)에 뛰어났던 분으로, 공자야말로 집대성(集大成)이라고 할 만하다. 집대성이란 쇠 소리로 음악을 시작했다가 옥 소리로 음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쇠 소리로 음악을 시작하는 것은 조리(條理)를 시작하는 것이고, 옥 소리로 음악을 마무리하는 것은 조리를 마치는 것이다. 조리를 시작하는 것은 지혜로움(智)의 일이고, 조리를 마무리하는 것은 성스러움(聖)의 일이다. 지혜로움은 비유하자면 솜씨와 같고, 성스러움은 비유하자면 힘과 같다. 예컨대, 백보(百步) 바깥에서 활을 쏠 때, 과녁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힘이요, 과녁을 맞히는 것은 힘이 아닌 것과 같다."
(≪맹자·만장하≫ 중에서)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進, 亂則退, 伯夷也. 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伊尹也.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 皆古聖人也, 吾未能有行焉, 乃所願, 則學孔子也.」「伯夷 伊尹於孔子, 若是班乎?」曰:「否, 自有生民而來, 未有孔子也.」曰:「然則有同與?」曰:

「有. 得百里之地而君之, 皆能以朝諸侯有天下, 行一不義, 殺一不辜, 而得天下, 皆不爲也. 是則同.」曰:「敢問其所以異.」曰:「宰我、子貢、有若, 智足以知聖人, 汙不至阿其所好. 宰我曰: 以予觀於夫子, 賢於堯舜遠矣. 子貢曰: 見其禮而知其政, 聞其樂而知其德, 由百世之後, 等百世之王, 莫之能違也. 自生民以

來, 未有夫子也. 有若曰: 豈惟民哉? 麒麟之於走獸, 鳳凰之於飛鳥, 太山之於邱垤, 河海之於行潦, 類也. 聖人之於民, 亦類也. 出於其類, 拔乎其萃, 自生民以來, 未有盛於孔子也. 」(≪孟子.公孫丑上≫)

【해석】
맹자(孟子): "자신이 바라던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으며,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갔가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물러난 분은 백이(伯夷)이다.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닐 것이며, 누구를 부린다고 백성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이 잘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나아간 분은 이윤(伊尹)이다. 벼슬을 해야 하면 벼슬하시고, 멈추어야 하면 멈추시며, 오래 해야 할 땐 오래 하시고, 빠르게 해야 할 땐 빠르게 하신 분은 공자(孔子)시다. 이 분들은 모두 옛날의 성인들이시다. 나는 아직 이러한 행실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공자를 닮는 것이다."
공손추(公孫丑): "백이와 이윤이 공자와 이렇게 같은 반열입니까?"
맹자: "아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난 이래로 공자 같으신 분은 없으셨다."
공손추: "그렇다면 같은 점은 있습니까?"
맹자: "있다. 백리의 땅을 얻어 통치를 한다면, 모두 다 능히 제후들을 조공 바치게 하고 천하를 소유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불의(不義)를 행하거나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 짓은 모두 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같은 점이다."
공손추: "그 다른 점을 감히 여쭙습니다."
맹자: "재아(宰我)와 자공(子貢)과 유약(有若)은 족히 성인을 알아볼 만한 지혜를 갖춘 인물들로, 아무리 수준을 낮추어도 자신이 좋아한다고 하여 아부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이들이다. 재아가 말했다. '내가 부자(夫子)를 보기에는 요순(堯舜)보다 한참이나 어지신 분이다.' 자공이 말했다. '그 예(禮)를 보면 그 정치(政)를 알고, 그 악(樂)을 들으면 그 덕(德)을 안다고 했다. 백세(百世)의 뒤에서 백세의 왕들을 비교해보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난 이래로 부자 같으신 분은 없으시다.' 유약이 말했다. '어찌 사람만 그렇겠는가? 짐승에 있어서 기린, 새에 있어서 봉황, 흙더미에 있어서 태산, 물웅덩이에 있어서 하해는 모두 같은 유(類)이다. 백성에 있어서 성인 역시 유이다. 그 유에서 도드라지고 그 모둠에서 뛰어난 것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난 이래로 공주보다 더 성대하신 분은 없으셨다.'"
(≪맹자·공손추상≫ 중에서)

맹자(孟子)가 말했다. "왕자(王者)의 자취가 사라지자 시(詩)가 없어졌고, 시가 없어진 연후에 춘추(春秋) 가 지어졌다. 진(晉)나라의 승(乘) 과 초(楚)나라의 도올(檮杌) 과 노(魯)나라의 춘추 는 동일한 것이다. 거기에 수록된 일은 제환공과 진문공에 관한 것이고, 그 문체는 역사이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뜻을 내가 조심스럽게 취하였다'라고 하

셨다."
(≪맹자·이루하≫ 중에서)

○ 孟子曰:「由堯舜至於湯, 五百有餘歲, 若禹、皐陶, 則見而知之, 若湯, 則聞而知之. 由湯至於文王, 五百有餘歲, 若伊尹、萊朱, 則見而知之, 若文王, 則聞而知之. 由文王至於孔子, 五百有餘歲, 若太公望、散宜生, 則見而知之, 若孔子, 則聞而知之. 由孔子而來至於今, 百有餘歲, 去聖人之世若此其未遠也, 近聖人之居若此其甚也, 然而無有乎爾, 則亦無有乎爾.」(≪孟子.盡心下≫)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요순(堯舜)으로부터 탕(湯)에 이르기까지가 오백여 년이라, 우(禹)임금이나 고요(皐陶)의 경우에는 보고 알았지만 탕(湯)의 경우에는 듣고 알았다. 탕(湯)으로부터 문왕(文王)에 이르기까지가 오백여 년이라, 이윤(伊尹)이나 내주(萊朱)의 경우에는 보고 알았지만 문왕(文王)의 경우에는 듣고 알았다. 문왕(文王)으로부터 공자(孔子)에 이르기까지가 오백여 년이라, 태공망(太公望)이나 산의생(散宜生)의 경우에는 보고 알았지만 공자(孔子)의 경우에는 듣고 알았다. 공자(孔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가 백여 년이니 성인(聖人)과의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고 성인(聖人)이 사셨던 곳과 이렇게도 가까운데, 그런데도 아무 것도 없다면 또한 아무 것도 없으리라."
(≪맹자·진심하≫ 중에서)

○ 夫天未欲平治天下也, 如欲平治天下, 當今之世, 舍我其誰也?(≪孟子.公孫丑下≫)

【해석】
"하늘이 아직 천하를 평치(平治)하시고 싶지 않으신 것이겠지, 만일 천하를 평치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세상을 당하여 나 말고 그 누가 있겠는가?" (≪맹자·공손추하≫ 중에서)